

# 국힘과 국비 확보·현안 해결 협치

김관영 도지사,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내년 예산, 전북특자도 출범 동력원” 강조  
“예산 확보 힘 보태달라”



1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기현 당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이어 정치권과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1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도 2024년 국가예산 핵심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과 도정 현안 압박 등 현안 해결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송언석 예결위 간사, 이음호 의원 등 당 핵심 인사가 참석함에 따라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

먼저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의 조당적 발의부터 국회 행안위·법사위·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협치가 없었다면 이뤄내기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전북사태에 대한 희망에 차있는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힘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24년 출범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도민들께 약속한 경제발전과 민생안정, 전북의 새로

운 도약과 상승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에 강력한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루브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 및 검증을 통한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하이퍼루브 기술개발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청정수소 산업의 주도권 확보 및 전주기 수소산업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단 시설원의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회 제공과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사업과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에 대한 신속한 추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덕권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유한 전북에서 K-문화가 콘텐츠로서 세계의 문화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울러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전북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의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의 막힌 현안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집권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도정 현안 압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화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치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단일부지가 기초성패 즉시 부지가 가능하고 신속한 확장도 용이한 새만금에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으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를 정점으로 8월 말 정부안 편성 완료까지 기재부 및 국회 핵심인사 대상으로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본격적인 기재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부처 및 국회 등 사전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지휘부를 비롯한 각 실국에서도 기재부 예산안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펼치며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국회, 민주 몫 상임위장 선출

예결 서삼석·교육 김철민 등

국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류 6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보건복지·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행정안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보임 안건을 처리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서삼석 예산결

산특별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날 재석 242표 중 216표, 신 위원장은 202표, 박 위원장은 211표, 이 위원장은 184표, 김교흥 위원장은 216표, 서 위원장은 209표로 당선됐다.

총 18개 국회 상임위 중 여야 합의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임위는 11곳이다.

이밖에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뉴시스

##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 잇따라

양봉농가 꿀벌 집단 폐사 원인 파악·대책 마련 등 요청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제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익산시 향안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박종대 의원은 익산푸드트럭지원센터 주변 악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주거금융지원 정책과 고도지구 재검토 지연에 따른 대책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신흥근린공원을 활용한 국화축제가 확대를 제안했다.

이중선 의원은 송리다길 명칭 변경 등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구시장 지중화 사업 및 노후 상수관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최근 관내 양봉농가에서 발생한 꿀벌 집단 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진 의원은 익산시 반대미 체육

센터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설계도와 계산, 버스 승하차장 표기 점자 미설치 구간, 수송차로실 안전요원 미배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손진영 의원은 민경강 수변도시 조성 관련 민경강 홍수위를 감안한 재해예방 방안 수립 필요, 아파트 과잉 공급과 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가, 시민,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조남석 의원은 연안 하천정비 유지관리, 준설작업 예산 현황, 재난지역 선포기준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질의하며 응동면 대조천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이재훈기자

## 군산시의회 정례회 개최... 15일간 의정활동 돌입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6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한국예총 군산지회,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시민들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방안 마련, 국인산업 폐기물소각 시설 설치 철회,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촉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회의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송미숙 의원의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 장

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이동학대 예방 및 피해이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 의원의 ‘군산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람·한경봉·박경태·우종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우종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군산=김관곤기자

##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 행자위, 소방안전타운 조성부지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4일 장수군에 조성중인 소방안전타운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소방항공대와 소방교육대를 한 곳에 모은 소방안전타운은 장수군 계남면에 소재한 양탄단지 지리에 6만9,900㎡의 부지면적, 연면적 5,441㎡, 총 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지난 5월 소방항공대 이전 공사를 완료하고 취항



식을 가진 신형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 상황과 소방교육대 신축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 문진위, 전주 낙수정 새뜰마을사업 현장 찾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4일 전주 낙수정 새뜰마을사업 현장과 전주·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공급부지를 방문,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등 현장의 정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전주시 교동 소재의 낙수정 새뜰마을사업 현장을 먼저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시찰·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낙수정 새뜰마을사업은 노후한 주거 환경 및 통행이 불편한 도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공동체 중심 생활인프라 조성하는 사업으



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어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해 공급현황을 청취하고, 미분양인 부지 시찰 및 공급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